

보도설명자료

(’20. 11. 29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중국이 김치 국제표준(ISO 24220) 제정을 주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(연합뉴스, 중앙일보, 한국경제 등, 11.2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- ◇ ‘중국이 김치 산업에 대한 ISO 국제표준을 주도하여 제정했다’는 중국 언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
- ◇ 11.29일 연합뉴스 <중국 쓰촨 김치 ISO인가...중 매체 “김치 종주국 한국 굴욕”>, 중앙일보 <중국 김치가 국제표준 됐다...환구시보 “종주국 한국의 굴욕”>, 한국경제 <中언론 “종주국 한국의 굴욕”... ‘중국 김치’ 국제표준으로 제정> 등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.

1. 기사내용

- 중국 환구시보는 29일 중국이 주도해 김치 규격과 시험방법을 정한 ISO 24220을 제정했다고 보도
 - 환구시보는 “중국의 김치산업은 이번 인가로 국제 김치 시장에서 기준이 됐다”고 주장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와 농식품부의 입장

- 중국이 제안하여 ‘ISO 24220 파오차이 - 규격 및 시험방법’ 국제표준이 제정된 것은 사실이나, 본 국제표준은 김치와는 관련이 없음
 - ISO 24220은 파오차이라 불리는 염장발효채소의 요구사항, 운송, 저장 등에 대한 것으로, 표준의 적용범위에 “김치(Kimchi)는 포함하지 않음”이 명시되어 있음

* ISO 24220 1. Scope: (앞부분 생략).... This document does not apply to kimchi.

□ 산업부는 농식품부와 함께 김치 분야 국가표준 및 ISO 국제표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

※ 문의: (산업부) 김태완 산업표준혁신과장(043-870-5380) / 고정하 사무관(043-870-5382)
(농식품부) 이시혜 식품산업정책과장(044-201-2111) / 이주영 사무관(044-201-2121)